국제전기위원회(IEC)총회 참석 소감

TC64 및 TC81 전문위원
의제전기설비연구원장 정용기

제65차 국제전기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이탈리아의 고풍스런 문화도시 피렌체(Fierce)에서 2001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었다.

나는 이번 총회에 관계 공무원과 함께 TC-81(피뢰설비) 분과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TC-81은 피뢰설비에 해당되는 모든 기준을 다루는 Technical Committee로 전세계에서 약 1,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관계 공무원과 관련 교수 및 실무전문가 등 약 22명이 참석하였다.

매번 IEC 회의에 참석해본 바, 느낀 바를 국가적으로 시급한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1995년 WTO에 가입했으며, 중국이 작년에 WTO 가입을 선언하였다. 전세계적으로 WTO에 가입한 국가는 140여개국을 넘어 세계화에 대한 큰 흐름을 벌써 흐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물결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 여기 WTO 서명 뒤에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라는 무서운 약속이 자리잡고 있다.

TBT라는 약속은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기술기준 코드 규격을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고유규격을 남의 나라에 강요 못한다는 내용이며, 전기분야의 경우 세계적으로 논의된 IEC Code로 일치시키겠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러면 국내의 모든 산업체의 경쟁력은 이 세계화된 규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각국에서 기업체와 관련기관이 총동원되어 이 IEC, ISO 총회나 규격회의에 사활을 거는 비중을 두고 있다.

국내 사정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먼저 정부나 기술표준원의 투입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수출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국제표준화의 이행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출을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업무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 등이 대폭적으로 투입되지 않을 경우 경쟁국에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를 따라가는 것조차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 예로 세계표준전압은 TC-8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TC-8에 "O" member(옵서버자격)로 참여한 바가 없다. 그러하기에 여기에 어떤 것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표준전압이 결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Φ4W AC 380-220V 전압이 기준에서 사라졌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 하나 인정하려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 이에 대한 모든 대안은 관련 전문가와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대처가 절대 불가능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코 큰 예산 투여가 아님에도 기술표준원의 업무를 국가적인 중차대한 업무가 아닌 하나의 규격을 다루는 정도의 업무에 무관심이 더 큰 문제이다.

세계 IEC 규격회의 과정을 지켜보면 한 전문가가 한 TC를 맡아 평생을 참가해야 그 TC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 있다.

즉 관련 실무자가 수시로 바뀌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참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더라도 관련 TC의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모르는 이가 여기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TC-81의 피뢰설비에 대한 기준 논의를 위해서 뇌방전의 이론과 피뢰설비를 어떻게 시공하고 설계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EC 회의 참석 관련자는 수시로 바뀌어서도 안 되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고 영어에 능통한 프로의 발굴이 지속되어야 한다.

국내의 대그룹(삼성, 현대, LG등)의 실무 전문가의 대폭적인 참여가 요구되는데, 각 기업에서는 당장 수익이 되지 않는 이런 기준 제정이나 참여를 관련기관에 미뤄버리는 경향이 큰 데, 이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에서 많은 예산 지원과 전문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각 TC에서 이들에 대한 활약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표준의 국제화 없이 상품 수출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상품을 외국에 팔아먹고 사는 나라다.

이 상품의 수출 기초작업은 세계기술기준의 포용과 국내 상품의 신속한 적용이 필수 불가결한 선결과제임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한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의 정책입안자나 관련 학계, 관련 기업에서 많은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더욱이 WTO/TBT 이행에 따른 국내 산업의 무차별적인 개방이 가지고 올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비를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참고하여 신속한 대책이 강구되는 시점이다.

일본은 이미 JIS의 대부분을 1995년부터 착수하여 2000년과 2001년 개정 완료하였고 관련 부속 대처 방안 등에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의 열악하고 관심 없는 분위기에서도 고군분투하는 기술표준원 관계 공무원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더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